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ol.59, No.10 (December 2009) pp.22-37

간호사복 디자인 개발에 관한 사례연구

- 고려대학교 의료원의 일반 간호사복 및 수간호사복을 중심으로 -

이 윤 정* · 이 예 영+ · 성 화 경**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부교수* ·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조교수+ ·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명예교수**

A Cas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Designs for Nurses' Uniforms

- Focusing on the Uniforms for Staff Nurses and Head Nurses at Korea University Medical Centers -

Yoon-Jung Lee* · Yhe-Young Lee+ · Hwa Kyung Seong**
Associate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Professor Emeritus,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투고일: 2009. 7. 16, 심사(수정)일: 2009. 10. 30, 게재확정일: 2009. 11. 9)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provide an example of a scientific and systematic approach to designing nurses' uniforms. Uniforms for the staff nurses and head nurses at Korea University Medical Centers were designed through the following four steps: research and analyses, design direction establishment, design presentation, and final decision. For the research and analyses, a focused group interview with 14 head nurses were conducted before the actual questionnaires were formed and distributed to 200 nurses at the medical centers. The data collected from 182 among 200 subjects were able to be used for the statistical analyses. As a result, the majority of nurses were not satisfied with the present nurse uniforms. They preferred pants to skirts, and straight pants to tapered pants. Blouses or jackets that slightly cover hips with sleeves reaching above the wrists were also preferred. Many respondents wanted uniforms that were practical and easy to manage. The ideal image of nursing uniforms were feminine, lively, active, light, cool, simple, and modern. According to the research and analyses result, design directions were established and uniform designs were presented to head nurses. Uniforms were designed based on symbols of Korea University and Korea University Medical Centers. Colors including white, pink, and grey were selected to represent the ideal image of nursing uniforms designated by the respondents. Fabrics including polyester(95%) and spandex(5%) blends, polyester(48%), rayon(48%), and spandex(4%) blends, and cotton(100%) were used for making garment samples. Final designs were decided by selecting and modifying the designs presented to the head nurses.

Key words: nurse uniform(간호사복), design(디자인)

Corresponding author: Yhe-Young Lee, e-mail: young509@korea.ac.kr

Ⅰ. 서론

본 연구는 고려대학교 의료원의 의뢰를 받아 진행된 간호사복 디자인 개발 과정에 관한 사례연구다. 최근 고려대학교 의료원은 보다 경쟁력 있는 서비스 제공을 통한 병원 홍보를 위하여 병원 리모델링 및 증축과 함께 새로운 환자복 및 간호사복 디자인 개발 및 도입을 계획하였다. 이에 본 연구팀은 보다 실용적이고 심미적이면서 고려대학교 의료원의 상징성을 잘 전달하는 환자복 및 간호사복 디자인 개발을 시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 간호사복 디자인 개발 과정을 다루도록 하겠다.

고려대학교 의료원은 안암병원, 구로병원, 안산병원 등 현재 총 세 곳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종합병원으로서 2008년 10월까지 의사직 1383명과 간호사직 166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간 진료 환자수가 꾸준히 상승하는 가운데 2007년에는 외래환자 1,979,563명과 입원환자 657,255명의 진료를 담당하였다. 고려대학교 의료원과 같은 큰 규모의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한 간호사복 디자인 개발 사례의 제시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간호사복 디자인 개발의 좋은 예가 되리라 사료된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고려대학교 의료원에서 착용하고 있는 간호사복에 대한 간호사들의 만족도를 알아본다. 둘째, 고려대학교 의료원 간호사들이 선호하는 간호사복의 스타일을 알아본다. 셋째, 고려대학교 의료원 간호사들의 요구에 맞으면서, 심미적으로 아름답고, 동시에 고려대학교 의료원의 상징성을 잘 전달하는 일반 간호사복과 수간호사복 디자인을 제시한다. 연구 방법을 제시하기에 앞서 문헌조사를 통해 간호사업 및 간호사의 직급을 소개하고 이어 간호사복에 관한 국내외 연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문헌 조사

1. 간호사업과 간호사의 직급

1) 간호사업

간호사업은 크게 병원간호, 전문간호, 지역사회간호로 나눌 수 있다. 병원간호는 치과와 한방을 포함한 크고 작은 병원 및 의원에서 이루어지는 직접간호와 간호관리업무를 의미한다. 병원간호는 외래진료부, 수술부, 입원실에서 이루어지며, 간호사는 의사, 물리요법사, 영양사, 간호조무사 등과 함께 환자간호를 결정한다. 최근 병원간호가 광범위해지면서 당뇨병환자 간호관리실, 중환자실, 심장질환자실, 인공신장실, 암환자관리실, 감염관리실 등이 병원에 설치되면서 특수교육을 받은 특수간호사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1)]

전문간호는 3년 이상의 해당 분야 실무경력과 석사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을 취득한 전문간호사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전문간호사에는 마취간호사, 정신간호사, 응급 전문간호사,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노인전문간호사,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중환자 전문간호사, 산업전문간호사 등이 있다.[2)] 이들 전문간호사는 병원간호 뿐 아니라 지역사회간호 영역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지역사회간호는 모자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모자보건은 소아보건과 모성보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좁은 의미로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소아와 여성의 건강관리를 의미하고 넓게는 신체장애자의 건강관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보건소에 배치된 모자보건 요원은 간호사를 포함한 의사, 조산사, 간호조무사이다. 학교보건을 담당하는 보건교사는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대학 졸업자나 교사순위고사에 합격하여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전문대학 졸업자이다. 산업보건을 담당하는 산업보건 간호사는 직업인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힘쓴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과 벽·오지 지역민의 건강과 위생을 담당하며, 간호사 또는 국가가 실시하는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 이수한 조산사 면허소지자가 근무하고 있다.[3)] 조산사는 간호사 면허소지자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의료기관에서 1년간 수습과정을 마치고 조산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4)]

2) 간호사의 직급

간호사는 국내 4년제나 2년제 간호학과 졸업자 또

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해당국의 간호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국내 간호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자를 의미한다.[5] 국내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에서 간호사의 직급은 크게 평간호사, 각 병동을 감독하는 수간호사, 그 위에 간호과장이나 팀장, 그리고 간호부를 대표하는 간호부장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수간호사 이상은 관리직으로 주로 병원간호 중 간호관리업무를 담당하므로 사무직에 가깝다. 또한, 평간호사는 일반 병동을 담당하는 일반 간호사 외에, 앞서 소개한 특수간호사와 전문간호사가 있다. 고려대학교 의료원의 특수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는 다른 종합병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반 병동 간호사와 구별되는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다.

간호사 외에 병원에는 간호조무사와 일반 업무원이 있는데, 간호조무사는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자로 간호조무사 양성 강습소나 학원에서 740시간 이상 교육받고 위탁 병원에서 780시간 이상 실습한 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의미한다.[6] 일반적으로 간호조무사와 일반 업무원 또한 고려대학교를 포함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간호사와 구분되는 유니폼을 각각 착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간호조무사, 일반 업무원, 특수간호사, 전문간호사 등을 제외한 일반 간호사와 수간호사의 유니폼 디자인 개발 과정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2. 간호사복에 관한 연구

전통적인 간호사복은 원피스 드레스의 형태에 흰앞치마와 캡(cap)을 착용한 모습이다. 이러한 간호사복의 실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간호사복이 탄생하게 되었다. 우선, Stubbs 외[7]는 1985년 37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사복 착용감을 조사한 결과, 원피스 드레스에 비해 상의와 바지로 구성된 유니폼이 더 실용적이고 모던하며 활동이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원피스 드레스 형태의 유니폼은 더 전문적인 느낌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58%의 간호사가 원피스 드레스 형태의 유니폼을 선호하였다.

Hawkey와 Clarke[8]는 1990년 간호사의 유니폼 착용 필요성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간호사와 환자 모두 간호사의 유니폼 착용을 사복 착용에 비해 선호했는데, 그 이유로는 유니폼의 깔끔한 이미지, 감염 예방력, 간호사와 일반인과의 구분력을 들었다. 하지만, 실제 실험 결과 감염 예방력은 유니폼과 사복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응답자들은 사복의 편안한 착용감과 환자와 간호사 사이의 유대감 증진이란 장점을 언급하였다.

같은 해 Blackmore와 Crock[9]은 간호사복으로 원피스 드레스 보다 바지와 셔츠 차림이 편안하고 활동적임을 주장하였다. 나아가 환자와 유대감 조성을 위해 사복을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였다. 또한, 사복 착용 시 가장 염려되는 감염 예방은 사복 위에 가운을 걸치고 장갑을 착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하였다.

O'Connor와 Wright[10] 또한 원피스 드레스형 유니폼이 노출의 위험이 있어 환자를 일으키거나 할 때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이로 인해 환자와 간호사가 부상을 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간호사 캡(cap)은 활동 시 머리에서 떨어질 수 있어 불편하다고 언급하였다. 반면, 사복 착용은 간호사와 일반인을 쉽게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였다. 이에 간호사들로 하여금 신분이 쉽게 구분되면서 착용감이 편안한 바지와 자켓으로 구성된 트레이닝복(track-suit)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환자들은 깔끔하고 착용감이 좋아 보이며 간호사가 덜 권위적이고 더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답하였다.

Sparrow[11]는 1991년 연구에서 유니폼을 착용하던 간호사들로 하여금 사복을 착용하게 한 후, 유니폼을 착용했을 때와 사복을 착용했을 때의 장단점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유니폼을 착용하였을 경우 간호사들이 좀 더 전문적으로 보이고 일반인과 쉽게 구분이 되었으며, 사복을 착용하였을 때에는 간호사가 의사와의 좀 더 대등한 관계 조성이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복의 경우 실용성과 활동성이 커 보이고, 환자에게 친근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환자들은 간호사들이 사복을 착용할 경우 이름과 직급을 알아

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명찰을 착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전반적으로 환자들의 83%가 간호사들이 캡을 착용하지 않는 것을 선호했던 반면 환자의 66%는 유니폼 착용을 선호하였다.

Bowman과 Thomson[12]은 1992년 간호사들의 캡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의 사용을 고집하는 간호사들의 의견에 반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에서도 역시 환자들의 68%가 간호사들의 캡 착용이 불필요하다 하였고, 96%의 환자들이 캡 없이도 간호사들의 구분이 가능했다 응답하였다.

심순학 외[13]는 1992년 국내 종합병원 임상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5.9%가 원피스 드레스형 간호사복을 착용하고 있고, 71.5%가 흰색의 간호사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90.5%가 캡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간호사들은 원피스 드레스형, 스커트 투피스형, 바지 투피스형, 개성에 따른 자유선택 중 바지 투피스형을 37%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간호감독 이상의 간호사들은 원피스 드레스형 간호사복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당시 가장 널리 사용되었던 간호사복 합성소재인 트로피칼지에 대해서는 정전기, 세탁성, 땀흡수성, 통풍성에 대한 불만족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캡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선택 착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조자 외[14]는 1993년 한 대학 부속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의사와 타부서 직원을 포함한 의료원 직원, 입원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간호사 복장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반인은 흰색 유니폼에 캡을 착용한 스타일을 선호하였다. 반면, 간호사들은 유니폼 색상에 관계없이 캡을 착용하지 않는 것을 선호하였다.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은 유색 유니폼에 캡을 착용한 스타일을 선호하였다.

김앙식[15]은 1997년 서울지역 6개 병원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니폼으로 블라우스와 바지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활동성이 좋고 구김이 안가며 흡습성이 좋은 소재를 원했다. 색상은 무채색 보다는 푸른색과 녹색의 유채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hna 외[16]는 1999년 12명의 간호사, 1명의 간호학과생, 1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간호사복의 전문적 이미지에 대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티셔츠(T-shirts)와 스웨트 셔츠(Sweatshirts)의 착용은 전문적 이미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실험 가운이 가장 큰 전문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적 이미지에는 간호사의 복장과 함께 태도와 자세도 영향을 주므로, 간호사의 전문적 이미지를 위해 실험 가운이 유니폼으로 반드시 착용될 필요는 없다 하였다.

김선희, 류은정[17]은 2002년 간호사복의 치수 적합성과 디자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치수 적합성과 디자인 모두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의 경우 폴리에스테르 100%와 면과 폴리에스테르 혼방 소재 모두 땀흡수성이 떨어져 불만족스러워 했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상의와 바지로 구성된 스타일을 선호했고, 라운드 네크라인, 만다린 칼라(collar), 컨버터블 칼라 중 컨버터블 칼라를 가장 좋아했으며, 상의에 요크가 들어간 디자인을 요크가 없는 디자인보다 더 선호하였다. 색상은 분홍, 아이보리, 하늘색이 인기가 있었고, 문양이 없는 것 보다 문양이 들어간 디자인을 선호했다.

류미애, 박옥련[18]은 2006년 부산 소재 병원 간호사 2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역시 상의와 바지로 구성된 스타일이 가장 인기가 있었다. 상의는 다트나 프린세스라인이 들어간 슬림형으로 중앙에 단추 여밈 처리가 되어 있고, 스탠드 칼라와 셋인슬리브(set-in sleeves) 가 달린 디자인을 가장 선호하였다. 색상은 흰색이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문양은 상의에만 들어가길 원했는데 병원 상징 문양이 가장 적합하다 응답하였다. 소재는 면과 합성섬유 혼방을 가장 선호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간호사들의 캡 착용은 불필요하게 인식되었고, 유니폼의 스타일도 원피스 드레스형에서 벗어나 바지 투피스형, 트레이닝복, 사복 등 다양한 스타일의 착용이 검토되었다. 또한 간호사들은 땀흡수성과 세탁성이 좋고 정전기가 일어나지 않는 소재를 선호하였고, 색채는 기존의 흰색은 물론 유채색을 선호하는 경향

도 나타났다. 일부 연구는 문양에 대한 선호 여부도 조사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심순학 외[19]의 연구에서 유니폼의 구성 요소로 제시된 색채, 형태, 소재와 함께 문양이 간호사복 연구의 중심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심순학 외가 제시한 유니폼의 기본적 특성인 기능성, 상징성, 심미성이 선행 연구의 관심사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의복 디자인 과정은 디자이너의 영감이나 직관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효율적인 디자인 목표의 달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디자인 설계 과정 또한 제시되었다. Davis[20]는 목표 설정, 관련된 외부 영향의 검토, 기준 확립, 계획 수립, 계획 실행, 제품 평가라는 여섯 단계를, Lamb과 Kallal[21]은 문제인식, 예비 아이디어, 디자인 계획 수립, 샘플 전개, 평가, 수행이란 여섯 단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Regan 외[22]는 문제 인식, 문제 정의, 문제 설명, 대안 탐색, 평가와 결정, 해결안의 구체화, 해결안의 평가란 과정을 제안하였고, Labat과 Solowski[23]는 문제 정의와 탐색, 창의적인 설계, 해결 안의 이행이란 과정을 추출하였으며, Shinha[24]는 조사와 분석, 컨셉의 전개 및 샘플 제작, 품평회를 통한 선택, 상품 생산, 유통이란 다섯 단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를 이론적 배경으로 이연희 외[25]는 문제의 이해, 해결안의 종합, 해결안의 평가란 단계를 거쳐 환자복 디자인을 진행하였고, 안민영 외[26]는 사전 조사 및 분석, 디자인 방향 설정, 디자인 제시, 디자인 심의 및 결정, 제품 생산이란 과정을 통해 유니폼 디자인을 시도하였다. 또한, 이예영 외[27]는 요구도 조사 및 분석, 디자인 방향 설정, 디자인 제시, 디자인 결정이란 네 단계를 적용한 환자복 디자인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이상에서 살펴 본 여러 가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의류 디자인 개발 과정을 절충하여, 조사와 분석, 디자인 방향 설정, 디자인 제시, 디자인 결정이란 네 단계를 거친 간호사복 디자인을 시도하였다. 우선, 조사와 분석의 단계에서는 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에서는 간호사복 관련 선행 연구의 중심이 된 색채, 형태, 소재, 문양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안암 의료원 간호사 14명을 집단면접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2006년 4월 고려대학교 안암과 구로 의료원 두 곳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각각 설문지 100부씩을 배포하였다. 두 병원에서 수거한 설문지 중 이용이 가능한 설문지는 182부였다. 설문조사는 간호사복 평가기준, 현재 착용하고 있는 간호사복의 디자인(형태, 색채, 문양 포함)과 소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불만사항, 선호하는 간호사복의 형태(아이템과 길이)와 이미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상적인 간호사복의 이미지는 형태와 관련된 구체적인 디자인 디테일, 색채, 문양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조사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1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및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두 번째 단계인 디자인 방향을 설정하였는데, 선호하는 간호사복의 이미지 조사 결과는 기존의 디자인 관련 이미지 및 감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디자인 방향 설정에 활용하였다. 간호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디자인 방향 설정 결과에 고려대학교 의료원의 상징성을 더하여 세 번째 단계인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디자인 제시 단계에서는 일반 간호사복 하복과 동복 상의 각 2점, 바지 2점을 제시하였고, 수간호사복은 하복과 동복 자켓 각 2점, 민소매 블라우스 2점, 스커트 4점을 제안하였다. 최종 디자인은 고려대학교 안암, 구로, 안산 의료원 세 곳의 간호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였다.

Ⅳ. 간호사복 디자인

1. 조사 및 분석

1) 면접조사

간호사복 디자인 개발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인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고려대학교 의료원 간호사들의 기존 간호사복에 대한 견해와 개선 방향을 알아보았다. 우선, 고려대학교 안암 의료원에서 수간호사 14

명을 대상으로 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기존 간호사복의 유형과 개선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기존의 고려대학교 의료원 간호사복은 〈그림 1〉[28]과 같은데, 일반 간호사복은 하복으로 흰색 바지에 고려대학교의 상징인 호랑이와 소나무 문양이 찍힌 반팔 상의를 착용하였다. 바지는 엉덩이 부분은 넉넉하게 맞고 단 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스타일이고, 앞트임의 하복 상의에는 스탠드 칼라가 달려있다. 겨울에는 같은 하의에 롤 칼라가 달렸고 소맷부리 부분이 립(rib)으로 처리된 긴팔 자켓을 착용하였는데, 하복 상의 위에 덧입기도 하였다. 수간호사 이상의 경우 흰 스트레이트 치마에 민소매를 착용하였고, 그 위에 여름과 겨울에 각각 흰색과 자주색 자켓을 착용하였다. 민소매는 뒤트임으로 앞판에는 역시 호랑이와 소나무 문양이 찍혀 있고, 뒤판은 문양 없이 흰색으로 되어 있었다. 일반 간호사복과 수간호사복 모두 폴리에스테르 100%의 합성소재로 제작되었다.

〈그림 1〉 고려대학교 의료원 기존 일반 간호사복(좌)과 수간호사복(우)

이러한 기존 간호사복에 대해 간호사들은 여러 가지 불만을 토로하였는데, 우선 소재적인 측면에서는 폴리에스테르의 특성상 자주 여러 번 세탁하게 되면 누렇게 변하는 점과 흐느적거려 깔끔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단점으로 들었다. 또한 소재의 흡습성이 떨어져 여름에 더운 점과 원단 자체가 얇게 직조되어 속옷이 비치는 점 등을 언급하였다.

간호사복의 형태에 대해서는 일반 간호사복의 스탠드 칼라와 수간호사복의 쟈켓 칼라가 목에 닿아 때가 잘 끼고 여름에 덥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간호사의 업무 특성 상 몸을 앞으로 구부리거나 손을 올릴 일이 많으므로, 목둘레가 파이거나 일반 간호사복 하복의 경우 반소매의 통이 넓어지면 속옷이 보일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일반 간호사복 상의에 대해 허리가 약간 들어가면서 활동성을 살린 디자인을 선호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 획기적인 박스형의 도입을 원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 외에, 일반 간호사복의 바지와 소매 길이를 활동성을 위해 조금 줄였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고, 바지의 형태를 스트레이트 스타일로 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다. 수간호사의 경우는 관리직에 해당하므로 실용성을 위한 바지 착용 보다는 기존과 같은 치마에 자켓 차림을 선호하였다.

문양과 색채에 대해서는 학교 상징물인 호랑이와 소나무를 조합해 만든 원단 문양이 지저분하고 유치하다는 의견과 귀엽다는 의견으로 양분되었다. 외국 간호사복의 예를 사진으로 제시하고 반응을 알아본 결과 화려하고 발랄한 무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면접 대상자들도 있었다. 또한, 기존의 간호사복의 호랑이와 소나무 문양은 살리되 좀 더 색채가 첨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체로 고려대학교 의료원의 상징성을 보여 주면서 간호사들의 심미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디자인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2) 설문조사

면접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사복 디자인과 관련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고려대학교 안암 의료원과 구로 의료원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각 100부씩 200부 배부하였다. 이 중 이용이 가능한 설문지 182부의 결과를 이용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한 무응답은 제거하여 SPSS 1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응답한 간

〈표 1〉 간호사복 평가 기준 (N = 182)

	1순위	2순위	3순위
실용성	131(72.0%)	34(18.7%)	8(4.4%)
심미성	18(9.9%)	22(12.1%)	41(22.5%)
관리성	19(10.4%)	78(42.9%)	43(23.6%)
상징성	9(4.9%)	19(10.4%)	36(19.8%)
정숙성	5(2.7%)	30(16.5%)	55(30.2%)

주: ( )안의 수는 전체 응답자 중의 비율

〈표 2〉 기존 간호사복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디자인	소재
매우 만족	1 (0.6%)	1 (0.6%)
만족	25 (13.9%)	18 (10.0%)
보통	92 (51.1%)	68 (37.8%)
불만족	47 (26.1%)	55 (30.6%)
매우 불만족	15(8.3%)	38 (21.1%)
전체	180 (100.0%)	180 (100.0%)

호사들은 모두 여성이었으며, 연령은 20-45세로 평균 26.34세였다. 근무기간은 1달에서 23년까지 다양했으나, 평균 근무기간은 3.87년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2.2%만이 수간호사급 이상이었고, 나머지 97.8%는 일반간호사였다. 간호사복 사이즈(size)는 44 사이즈 착용자가 15.8%, 55 사이즈가 47.4%, 66 사이즈가 28.9%, 77 사이즈 이상이 9.0%였다.

설문지에서는 간호사복에서 중시되어야 할 특성, 기존 간호사복의 디자인 및 소재에 대한 만족도와 불만족 내용, 선호하는 하의의 종류 및 형태, 선호하는 상의 길이와 소매의 길이, 기존 간호사복의 이미지와 이상적인 간호사복의 이미지를 조사하였다. 간호사복에서 중시해야할 특성에 관한 질문은 의복의 추구 혜택과 평가기준과 관련된 논문들[29]을 참조하여 심미성, 관리성, 실용성, 정숙성, 상징성의 5가지 특성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매기도록 하였다. 이 특성들은 심순학 외[30]가 제시한 유니폼의 기본 특성인 기능성, 상징성, 심미성에서 기능성이 관리성, 실용성, 정숙성으로 세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 간호사복의 디자인 및 소재에 대한 만족도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와 "매우 만족한다 (5)"를 양극으로 하는 5점 의미미분척도로 구성하였다. 기존 간호사복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유 기술하도록 하였고, 기존 간호사복의 이미지와 이상적 간호사복의 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시각적 디자인을 평가하는 감성언어와 관련된 논문들[31]에서 이용된 형용사쌍 중 부정적으로 서술되거나 가치평가와 관련되지 않은 13개의 형용사쌍을 추출하여 5점 의미미분척도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조사 결과를 살펴보자면, 우선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간호사복에서 중시되어야 할 평가 기준 1순위로는 실용성을 선택한 응답자들이 72.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관리성(10.4%)과 심미성(9.9%)의 순이었는데, 실용성을 택한 응답자들의 수와 관리성과 심미성을 1순위로 선택한 응답자의 수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2순위로는 관리성이 42.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실용성(18.7%)과 정숙성(16.5%)이었다. 3순위로는 정숙성이 30.2%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관리성(23.6%)과 심미성(22.5%)이 이었다. 따라서, 응답자들은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잦은 세탁 등을 이유로 간호사복에서 실용성, 관리성, 정숙성 등을 심미성이나 상징성보다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염 예

방력이나 편안한 착용감 등 실용적인 측면이 중시되었던 기존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32] 하지만 간호사와 일반인과의 구분력이나 전문적인 느낌이 중요시된 과거 연구 결과를 감안해 볼 때 상징성도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33]

기존 간호사복 디자인과 소재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표 2〉와 같다. 디자인에 대해서는 51.1%가 보통, 34.4%가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 14.5%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재에 대해서는 37.8%가 보통, 51.7%가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 10.6%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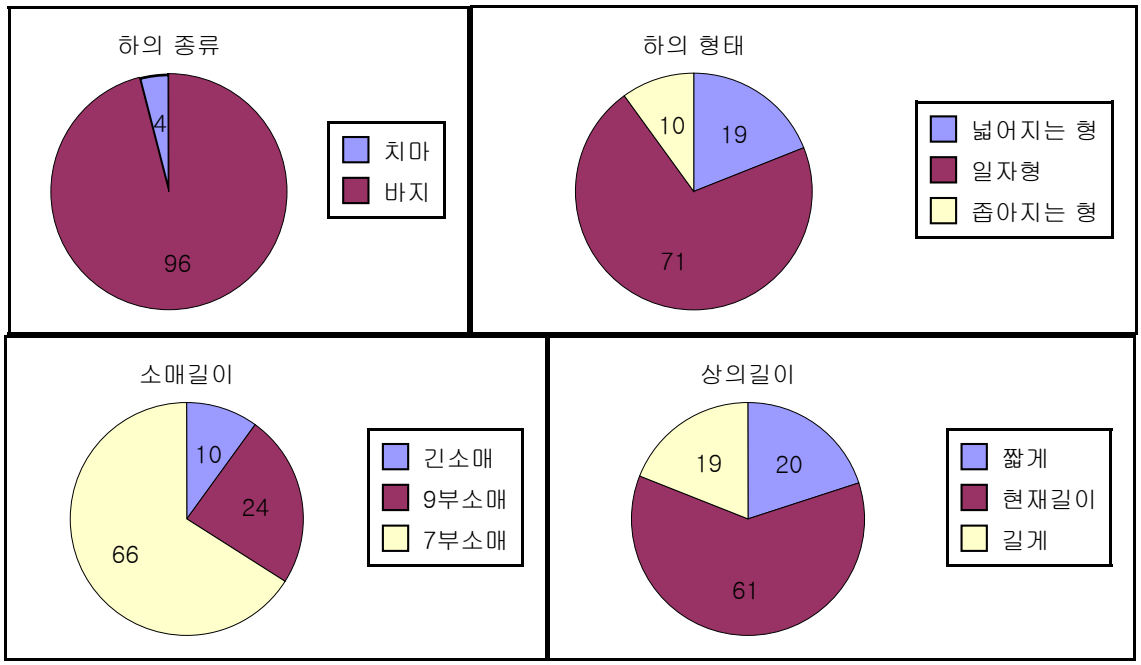
구체적인 불만족 사항에 대한 자유로운 기술 결과는 〈표 3〉과 같다. 한 응답자가 두 가지 이상의 불만사항을 기술한 경우가 많았다. 응답자들은 소재와 디자인 측면에 대해 대부분 심미성, 관리성, 실용성, 정숙성을 중심으로 불만 사항을 언급했는데, 소재에 대해서는 땀흡수성이 떨어지고 이와 관련해 덥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구김이 잘 가고, 때가 잘 타며, 속옷이 비친다는 의견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앞선 간호사복으로 100% 합성소재를 사용하였을 경우 발생한 불만적 요인 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34] 한편,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학교 상징인 마스코트에 대한 불만이 높았고, 이 외에 색상과 의복의 형태에 대한 불만 등도 언급하였다.

간호사복의 기본적인 형태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문항들에 대해서는, 우선 〈그림 2〉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간호사들(96%)이 하의로 치마 보다 바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외 대부분의 최근 선행 연구에서 간호사들이 바지로 된 투피스형 간호사복을 선호한 결과와 일치함은 물론, 오늘날 대부분의 일반 간호사들이 활동성을 고려해 착용하고 있는 상의와 바지로 구성된 투피스형 간호사복의 선호도를 보여준다.[35] 이는 설문에 응한 간호사들의 평균 근무 기간이 3.87년으로 대부분 일반간호사에 해당하였으므로 치마를 선호하는 사무직인 수간호사들에 비해 바지를 선호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인 바지의 형태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바지 단 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 보다는 일자형의 바지를 원하는 간호사들이 71%로 가장 많았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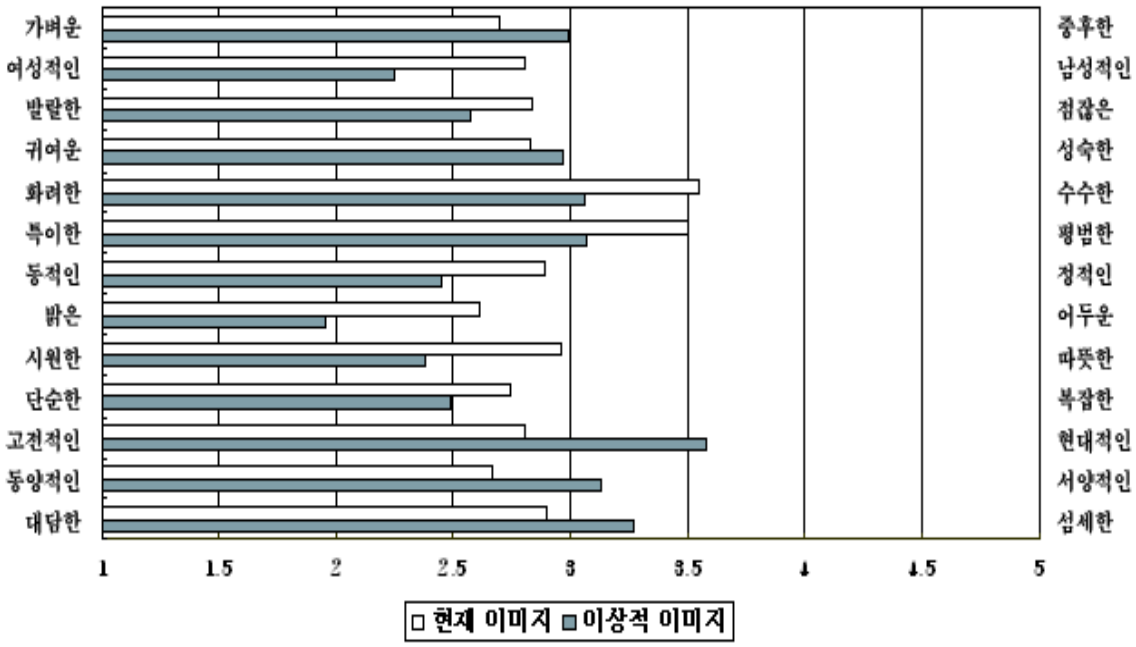
또한, 상의의 길이는 기존의 일반 간호사복과 같

〈표 3〉 기존 간호사복에 대한 불만족 사항

불만내용	빈도
소재/관리	86
- 전반적인 불만	4
- 땀 흡수 안 된다, 몸에 달라 붙는다	13
- 구김이 잘 간다, 다림질이 안 된다	10
- 때가 잘 탄다, 때가 잘 안 진다, 볼펜자국이 잘 묻고 안 지워짐	10
- 여름에 덥다, 두껍다	11
- 보푸라기 잘 생긴다	9
- 색이 바랜다	6
- 세탁문제 (세탁시 손상 많고 늘어남)	6
- 속옷이 비친다	11
- 소재가 약하다, 금방 낡는다, 주머니가 찢어진다	3
- 통기성이 나쁘다	3
디자인	17
- 전반적 불만 (맵시가 안 난다, 촌스럽다 등)	8
- 마스코트 불만	9
전반적인 내용	3
- 깔끔하지 않다, 평범하다, 만족스러운 데가 없다	



〈그림 2〉 간호사복 형태에 대한 선호도



〈그림 3〉 간호사복 이미지

이 엉덩이를 살짝 덮는 길이 그대로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61%로 가장 높았으나, 기존 일반 간호사복의 길이 보다 약간 짧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20%나 되었다〈그림 2〉. 이는 면접조사 결과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간호사들의 직업 특성상 몸을 구부리거나 팔을 올릴 일이 많으므로, 정숙성을 고려해 엉덩이를 적당히 덮어주는 기존 상의의 길이가 가장 적당하다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선호하는 소매의 길이는 〈그림 2〉에서와 같이 7부 소매가 66%, 9부 소매가 24%, 긴 소매가 10%였다. 이 문항에서는 동복인지 하복인지 언급하지 않고 선호하는 소매의 길이를 물었으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시기가 4월로 날씨가 따뜻해지는 철이었기 때문에 7부 소매가 가장 선호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디자인 디테일, 색채, 문양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간호사들의 기존 간호사복에 대한 이미지와 이상적인 간호사복의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기존 간호사복은 대체로 수수하고 평범하면서 밝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상적인 간호사복으로는 여성적이며 발랄하고 동적이면서, 또한 밝고 시원하며 단순한 현대적인 이미지를 선호하였다.

2. 디자인 방향 설정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사복의 디자인 방향을 소재, 형태, 색채, 문양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우선 소재의 경우 설문 조사 결과 간호사복의 중요한 특징으로 밝혀진 실용성과 관리성과 함께 소재에 대한 구체적인 불만사항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물세탁, 다림질, 활동성 등 실용성과 관리성이 용이하면서 구김이 잘 안가는 폴리에스테르(95%)와 스판덱스(5%) 혼방 직물과 레이온(48%), 폴리에스테르(48%), 스판덱스(4%) 혼방 직물, 그리고 땀 흡수성이 좋아 기존의 폴리에스테르 100% 소재에 비해 시원한 면 100% 소재 세 가지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소재의 선택은 간호사복 전문 공급 업체인 E사와 소재 전문 업체인 H사 등과의 상담을 통해 경제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간호사복의 형태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일반 간호사복의 경우 일자형 바지에 기존 길이의 엉덩이가 덮이는 상의로 구성하였다. 소매 길이의 경우 설문조사 결과 7부 소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는데, 이는 설문조사가 날씨가 본격적으로 따뜻해진 4월에 이루어진 결과로 사료되어, 하복은 짧은 소매로 디자인 하되 동복은 긴 소매 끝에 고무줄 처리를 하여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디자인 방향을 설정하였다.

색채는 선행연구에서 무채색이 선호되기도 하고 유채색이 선호되기도 하는 상반된 조사 결과가 있었다. 따라서 간호사들이 선호하는 간호사복의 이미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밝고 시원한 이미지의 흰색과 여성스럽고 가벼우며 단순한 느낌의 분홍색, 그리고 활동적인 이미지의 회색을 일반 간호사복의 주된 색채로 선택하였다. 교색 중 회색으로 주색의 하나인 Warm Gray(pantone 7528 C)와 보조색의 하나인 Cool Gray(pantone cool gray 11 C)가 있으나 후자의 경우 명도가 너무 낮아 주색인 Warm Gray에서 붉은 빛과 노란 빛은 빼고 명도(K20)는 맞춘 회색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분홍색은 난색으로 시원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으나, 색상의 명도가 높으면 가벼운 느낌을 주고 채도가 높으면 단순한 느낌을 준다는 추선형 외[36]의 연구 결과에 따라, 명도와 채도를 높여 난색의 따뜻한 이미지를 보완한 여성스러운 이미지의 분홍색을 주된 색채의 하나로 채택하였다. 수간호사복의 경우 이 외에 교색 중 다른 주색인 Crimson(pantone 202 C)이 지나치게 강렬한 관계로 채도를 낮추고 명도를 높인 색채의 원사를 흰색과 교직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문양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무지의 소재에 비해 선호되었고, 또한 상의에만 문양이 들어간 디자인을 선호하는 결과도 있어 문양을 넣은 원단과 무지의 원단을 동시에 사용하여 간호사복 디자인을 제안하기로 결정하였다.[37] 구체적인 문양은 구상무늬이면서 표현이 추상적이기 보다는 사실적이고 비정형이기 보다는 정형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구상무늬가 비구상무늬에 비해 부드럽고 여성적이며, 사실적 표현이 추상적 표현에 비해 가볍고 여성적이라는 김윤경 외[38]의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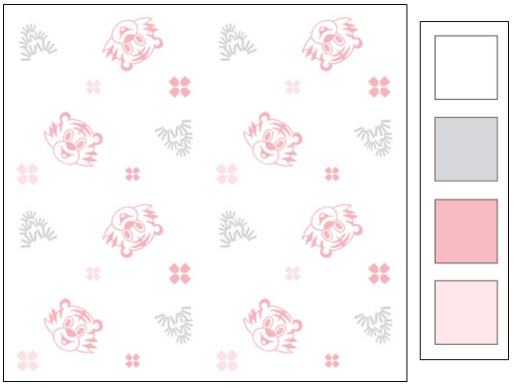
연구에서 정형은 비정형에 비해 딱딱하여 경연성이 떨어지나 동적이고 발랄하여 율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발랄하고 동적인 간호사복의 이미지를 선호하는 조사 결과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인자[39]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하무늬는 동적이고 현대적이며 밝고 시원한 이미지를 주므로, 설문 조사 결과에 맞는 이상적 간호사복 디자인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정형인 기하무늬를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사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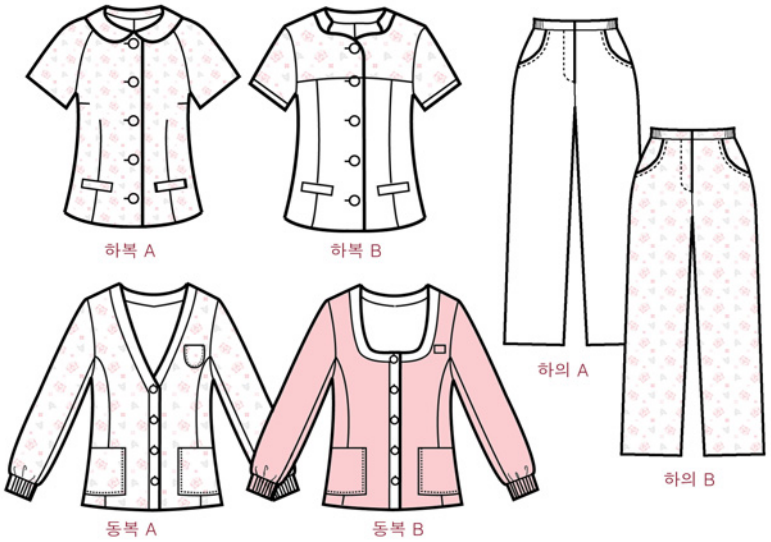
3. 디자인 제시

설정된 디자인 방향에 따라 일반 간호사복과 수간호사복을 디자인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중시된 실용성과 관리 용이성을 갖추면서 면접조사에서 언급되었던 고려대학교 의료원 고유의 상징성을 담은 심미적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그림 4〉의 고려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의료원의 상징물인 잣나무, 방패, 호랑이를 응용하여 〈그림 5〉의 소재 도안을 디자인하였다. 도안의 문양은 설정된 디자인 방향에 따라 구상무늬에 사실적이고 정형이면서 기하학적인 특성을 담고 있다. 각 문양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배치하고 방패를 이용한 꽃문양의 크기와 명도를 달리하여 율동감을 부여함으로써 발랄하고 동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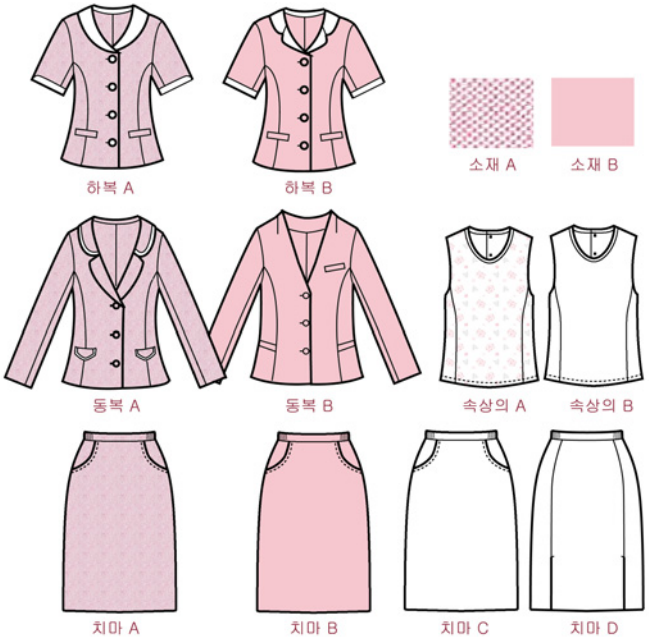
우선 일반 간호사복의 경우 완성된 소재 디자인을 프린트한 원단과 함께 분홍색과 흰색 소재를 이용해 〈그림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상의는 하복과 동복 각각 두 디자인과 하의 두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하복 상의는 여성스러운 느낌의 라운드 칼라와 라글란 소매를 이용한 디자인 A와 스탠드 칼라의 느낌을 주면서 스탠드 분이 없이 목둘레에 자연스럽게 내려앉는 디자인 B를 제시하였다. 디자인 B의 경우 김선희 외[40]의 연구에서 요크가 들어간 디자인이 선호되었

〈그림 4〉 고려대학교 및 고려대학교 의료원 상징물


〈그림 5〉 소재 디자인



〈그림 6〉 일반 간호사복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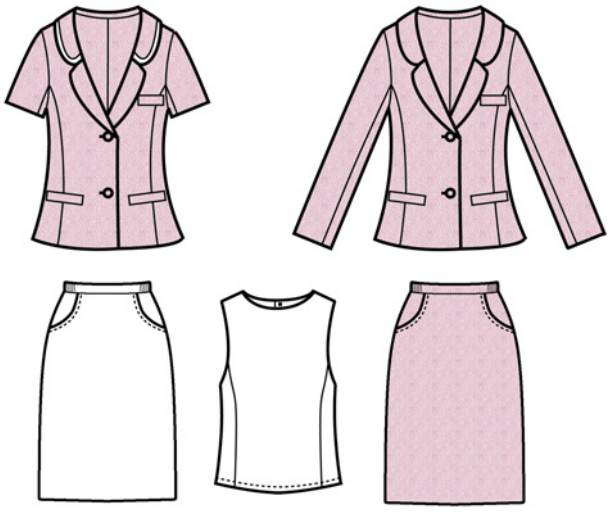
〈그림 7〉 수간호사복 디자인

던 결과를 반영하여 요크를 넣어 디자인하였다. 두 하복 디자인 모두 칼라가 목에 닿아 오염이 잘 되고 여름에 덥다는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목둘레가 편안하도록 하되 너무 파여 간호사들의 활동이나 정숙성에 불편이 없도록 디자인하였다. 동복 상의는 가디건 느낌의 V-네크라인과 U-네크라인의 두 디자인을 제

시하였다. 손목둘레는 모두 고무줄 처리하여 소매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목둘레와 앞중심을 니트로 처리하였다. 하의는 일자형 바지를 흰색과 문양이 들어간 소재로 두 벌 디자인하였다. 소재는 동복 B만 면 100%의 직물로 제작하고 나머지 디자인은 폴리에스테르(95%)와 스판덱스(5%) 혼방의 직물 소재를 사용하였다.

수간호사복은 〈그림 7〉과 같이 고려대학교 교색인 crimson의 명도를 높이고 채도를 낮춘 색채와 흰색의 원사를 교직한 레이온(48%), 폴리에스테르(48%), 스판덱스(4%) 혼방 직물 A를 시직하여, 동·하복 상의 A와 치마 A를 제시하였다. 소재 B는 원단 도안 디자인에 사용된 짙은 분홍색의 폴리에스테르(95%)와 스판덱스(5%) 혼방 직물로 동·하복 상의 B와 치마 B에 사용되었다. 속상의 A와 B, 치마 C와 D 모두 일반 간호사복에 사용되었던 폴리에스테르

〈그림 8〉 일반 간호사복 최종 디자인



〈그림 9〉 수간호사복 최종 디자인

(95%)와 스판덱스(5%) 혼방 직물로 디자인하였다. 상의는 밝고 깔끔한 이미지를 위해 흰색으로 칼라, 커프스, 바인딩 처리를 하였다. 치마는 앞 양쪽에 트임 처리한 디자인 D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뒤트임 처리하였다.

4. 디자인 결정

디자인을 결정하기 위하여 〈그림 6〉와 〈그림 7〉에 제시한 디자인을 실제 제작하여 고려대학교 안암, 구로, 안산 의료원의 간호부 간부들을 대상으로 품평회를 실시하였다. 일반 간호사복과 수간호사복 모두 직접 간호사들이 착용하여 디자인의 장단점에 대해 토의하였다. 그 결과 일반 간호사복으로 심미성, 기능성, 상징성을 이유로 동・하복 상・하의 모두 A 디자인이 선호되었다. 이는 상의에만 문양이 들어간 디자인이 선호되었던 선행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41] 반면 하복의 경우 요크가 들어간 디자인 보다는 안 들어간 디자인을 선호하였는데, 이는 선행 연구[42]와 반대되는 결과다. 합성섬유의 단점인 낮은 흡습성, 보풀 발생, 잦은 세탁 시 누렇게 변하는 점 등을 피해 100% 면으로 제작된 동복 B의 경우 방추가공을 하더라도 여러 번 세탁한 후에는 다림질을 해야 하는 단점이 지적되었다. 선택된 디자인은 여자 일반 간호사복 디자인으로 제시된 것이므로, 〈그림 8〉와 같이 남자 일반 간호사복은 최종 선택된 여자 일반 간호사복 상의를 박스형으로 변형시키고 칼라를 각이 지게 변형하여 스탠드를 별도로 넣은 셔츠 칼라로 디자인하였다.

수간호사복은 수간호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하복 상의의 경우 동복 A를 변형시킨 디자인으로 〈그림 9〉와 같이 확정되었다. 실용성을 위해 원래 제안했던 디자인의 주머니 플랩(flap)을 없애 웰트 파켓(welt pocket)으로 바꾸었으며, 목선을 깊이 파 단추를 두 개만 달아 주었다. 하복 상의는 원래 디자인에서와 같이 산뜻한 느낌을 위해 칼라에 바인딩 처리를 해 주었고, 동복은 칼라에 바인딩 처리 없는 차분한 스타일로 확정하였다. 치마는 여름에는 흰색의 디자인 C로, 겨울에는 상의와 같은 소재인 디자인 A로 선택하였다. 속상의는 문양이 들어간 디자인 A에 비해 흰색인 디자인 B를 계절에 관계없이 착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수간호사들이 업무상 외부인을 만나거나 외출할 일이 많아 외출복을 겸할 수 있는 디자인을 선호한 결과다.

V. 요약 및 결론

의료산업 내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질 높은 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함은 물론 병원 홍보를 위해서 병원의 상징성을 담은 심미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병원 내 유니폼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병원의 유니폼 중 하나인 간호사복은 병원을 찾는 환자들과 접촉이 많은 간호사들의 활동 및 인상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간호사들의 간호사복에 대한 만족도와 선호하는 간호사복 디자인을 알아보고 이에 맞는 실용적이면서도 심미적 상징성을 담은 일반 간호사복과 수간호사복 디자인 과정을 소개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간호사복 디자인 과정의 사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디자인 과정은 조사와 분석, 디자인 방향 설정, 디자인 제시, 디자인 결정이란 네 단계로 나누어 색채, 형태, 소재, 문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조사와 분석의 단계에서는 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간호사복의 특징으로는 실용성, 관리성, 정숙성과 같은 기능적인 측면이 심미성이나 상징성보다 중시되었다. 기존 간호사복에 대해서는 디자인 전반에 대한 불만도 컸고, 기존 폴리에스테르 100%의 간호사복에 대해 땀 흡수성과 구김은 물론 덥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후자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시기가 더워지기 시작한 때임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가장 선호한 하의는 일자형의 바지였고, 상의는 기존과 같이 엉덩이를 살짝 덮는 길이에 소매는 더워지던 시기적 특성상 7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상적인 간호사복의 이미지를 표현한 형용사로는 '여성적', '발랄한', '동적', '밝은', '시원한', '단순한', '현대적'이 높게 지목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디자인 방향을 설정

하였는데, 색채로는 시원한 느낌의 흰색, 여성스럽고 가벼우며 단순한 이미지의 분홍색, 활동적인 이미지의 회색을 선택하였다. 선택한 색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의 상징물인 잣나무, 방패, 호랑이를 응용해 율동성을 부여한 문양의 원단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이 프린트 소재와 분홍색과 흰색의 단색 소재, 분홍색과 흰색을 교직한 소재를 간호사복 디자인에 이용하였는데, 물성은 간호사들의 불만을 수렴해 전문 업체와의 상담을 통해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레이온(48%), 폴리에스테르(48%), 스판덱스(4%) 혼방, 폴리에스테르(95%)와 스판덱스(5%) 혼방, 면(100%)인 직물을 선택하였다. 이 소재들을 이용해 간호사들이 선호하는 형태의 일반 간호사복과 수간호사복 아이템 디자인을 각각 두 벌 이상씩 제안하였다.

제시한 디자인은 샘플로 제작해 간부급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품평회를 열었다. 그 결과 일반 간호사복은 문양이 프린트된 소재로 만든 여성스러운 라운드 칼라에 활동적인 라글란 소매가 달린 하복 상의와, 같은 소재로 제작되어 소매 끝이 고무줄 처리돼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가디건 스타일의 동복 상의가 선택되었다. 하의는 조사 결과 간호사들이 선호하는 일자 바지 형태를 흰색으로 제작하게 되었는데, 이는 상의에만 문양이 들어간 디자인을 선호한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다.[43] 수간호사복은 분홍색과 흰색 원사를 교직한 소재로 단추 두 개와 웰트 파켓이 달린 하·동복 상의로 확정되었는데, 하복의 경우 칼라에 흰색으로 바인딩 처리하여 산뜻함을 살렸다. 치마는 뒤트임이 있는 디자인으로 하복은 흰색, 동복은 교직한 소재를 선택하였다. 속상의는 계절에 관계없이 학교 문양이 들어간 디자인이 아닌 흰색 민소매를 착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수간호사들이 업무상 외부인을 만나거나 외출 시 외출복을 겸할 수 있는 디자인을 선호한 결과로 유니폼의 원래 특성상 추구해야 하는 상징성이 배제되었다. 소재는 수간호사복 하·동복 상의와 동복 치마는 레이온, 폴리에스테르, 스판덱스 혼방 직물을 사용하고, 그 외의 모든 일반 간호사복과 수간호사복은 폴리에스테르와 스판덱스 혼방 직물로 확정되었다.

이상 제시한 디자인 과정이 앞으로 보다 실용적이고 심미적인 간호사복 디자인을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소재 선택 과정에서 세탁이 용이하면서도 다림질이 필요 없고 흡습성이 좋은 적당한 가격의 소재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앞으로 보다 이상적인 간호사복의 디자인을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소재의 개발이 이루어지거나 병원 차원에서 간호사복의 세탁 및 다림질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환자복과 같이 간호사복의 세탁과 다림질이 병원에서 서비스 된다면 흡습성이 좋고 살균 세탁이 가능한 면 소재의 일반 간호사복 착용이 보편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 다룬 일반 간호사복과 수간호사복 외에도 특수간호사복, 간호조무사복, 일반 업무원복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디자인 과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1) 이선옥, 박정호, 김매자 (2006). *新 간호학개론* (제 2개정판).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p. 280-281.
2) *위의 책*, pp. 283-284.
3) *위의 책*, pp. 281-283.
4)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검색일 2009. 10. 8, 자료출처 http://www.q-net.or.kr
5) 이선옥, 박정호, 김매자. *앞의 책*, pp. 281-283.
6) *위의 책*, pp. 294-295.
7) Stubbs, D. A., Buckle, P. W., Hudson, M. P., Butler, P. E., & Rivers, P. M. (1985). Nurse's uniform: An investigation of mo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22*(3), pp. 217-229.
8) Hawkey, B., & Clarke, M. (1990). Dress sense or nonsense? *Nursing Times, 86*(3), pp. 28-31.
9) Blackmore, S., & Crock, E. (1990). Uniform view. *The Australian Nurses Journal, 20*(1), pp. 15-16.
10) O'Connor, S., & Wright, M. (1990). Removing barriers to communication. *Nursing Standard, 5*(12), pp. 26-27.
11) Sparrow, S. (1991). An exploration of the role of the nurses' uniform through a period of non-uniform wear on an acute medical ward.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6*, pp. 116-122.
12) Bowman, G. & Thomson, D. (1992). Where did you get that cap? *Nursing Times, 88*(5), pp. 43-45.
13) 심순학, 이정옥, 박숙현 (1993).임상간호사의 간호유니폼에 대한 선호경향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논문집, 14*(4), pp. 95-122.

14) 김조자, 이원희, 허혜경, 김창희, 홍성경 (1993). 간호사의 복장 형태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조사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3*(4), pp. 631-648.
15) 김앙식 (1997). 간호사복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섬유기능대학 논문집, 1*, pp. 263-276.
16) Lehna, C., Peterson, T. G., Grubaugh, K., Mastropietro, S., & Schoettle, B. (1999). Nursing attire: Indicators of Professionalism?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15*(3), pp. 192-199.
17) 김선희, 류은정 (2002). 간호사의 유니폼에 대한 만족도와 전문직 자기이미지에 관한 연구. *간호행정학회지, 7*(3), pp. 455-472.
18) 류미애, 박옥련 (2006). 간호사 유니폼에 대한 만족도와 디자인 선호도에 관한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8*(1), pp. 349-361.
19) 심순학, 이정옥, 박숙현. *앞의 책*, pp. 95-122.
20) Davis, L. M. (1996). *Visual design in dress* (3rd ed.) Enflemwood Cliffs, NJ: Prentice Hall.
21) Lamb, J. M., & Kallal, M. J. (1992). A conceptual framework for apparel desig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0*(2), pp. 42-47.
22) Regan, C. L., Kincade, D. H., & Sheldon, G. (1998). Applicability of the engineering design process theory in the apparel design proces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6*(1), pp. 36-46.
23) Labat, K. L., & Skolowski, S. L. (1999). A three-stage design process applied to an industry-university textile product design project.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7*(1), pp. 11-20.
24) Shinha, P. (2001). The mechanics of fashion. In T. Hines & M. Bruce (Eds.). *Fashion marketing: Contemporary issues* (pp. 165-189). Oxford; Boston: Butterworth-Heinemann.
25) 이연희, 박재옥, 서미아, 안민영 (2004). 디자인 프로세스를 적용한 환자복 개발 사례 연구. *한국생활과학연구, 24*, pp. 5-23.
26) 안민영, 이연희, 박재옥, 서미아, 진성모 (2006). 업무유형에 따른 유니폼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담배인삼공사 유니폼디자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0*(2), pp. 306-315.
27) 이예영, 이윤정, 성화경 (2006). 환자복 디자인 개발에 관한 사례 연구: 고려대학교 의료원의 일반 환자복과 산부인과용 가운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4*(12), pp. 9-18.
28) 이화 유니폼 (2000). 자료검색일 2009. 10. 23, 자료출처 http://ewhauniform.co.kr/showproduct/shopping__main.asp?key1=part2&keyword1=Nurse%20Wear; 이예영이 2006년 3월 20일 촬영한 고려대학교 수간호사복.
29) 강은미, 박은주 (2003). 의류제품구매시 소비자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의류점포 서비스 품질, 의복평가기준 및 의복관여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7*(1), pp. 29-39; 안민영, 이연희, 박재옥, 서미아, 진성모. *앞의 책*, pp. 306-315; 한성지, 양리나, 김문숙 (2002). 50-60대 여성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의복평가기준과 구매장소를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0*(5), pp. 504-517; Eckman, M., Damhorst, M. L., & Kadolph, S. J. (1990). Toward a model of the in-store purchase decision process: Consumer use of criteria for evaluating women's appar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8*(2), pp. 13-22.
30) 심순학, 이정옥, 박숙현. *앞의 책*, pp. 95-122.
31) 김윤경, 이경희 (2000). 의복무늬의 시각적 감성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6), pp. 861-872.; 이인자 (1998). 직물문양 차이에 따른 이미지 지각. *건국대학교 생활문화 예술 논집, 21*, pp. 41-54.; 추선형, 김영인 (2002). 패션 소재의 색채 이미지와 질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2), pp. 193-204.
32) Hawkey, B., & Clarke, M. *op. cit.*, pp. 28-31; O'Connor, S., & Wright, M. *op. cit.*, pp. 26-27.
33) Stubbs. *op. cit.*, pp. 217-229; Hawkey, B., & Clarke, M. *Ibid.*, pp. 28-31; O'Connor, S., & Wright, M. *Ibid.*, pp. 26-27.
34) 심순학, 이정옥, 박숙현. *앞의 책*, pp. 95-122; 김선희, 류은정. *앞의 책*, pp. 455-472.
35) 심순학, 이정옥, 박숙현. *위의 책*, pp. 95-122; 김선희, 류은정. *위의 책*, pp. 455-472; 김앙식. *앞의 책*, pp. 263-276.
36) 추선형, 김영인. *앞의 책*, pp. 193-204.
37) 김선희, 류은정. *앞의 책*, pp. 455-472.; 류미애, 박옥련. *앞의 책*, pp. 349-361.
38) 김윤경, 이경희. *앞의 책*, pp. 861-872.
39) 이인자. *앞의 책*, pp. 41-54.
40) 김선희, 류은정. *앞의 책*, pp. 455-472.
41) 류미애, 박옥련. *앞의 책*, pp. 349-361.
42) 김선희, 류은정. *앞의 책*, pp. 455-472.
43) *위의 책*, pp. 455-472.